

# 어르신 재능 쑥쑥 키워 이웃에 기부(Give)

봄을 맞아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되는 등 복지관이 분주하다. 복지관 주 이용대상자인 어르신들 또한 노인일자리, 동아리 참여를 통해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몸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그 중 은퇴한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살리거나 발굴하며 사회에 되돌려주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관별 재능기부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어르신들의 재능기부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례교육을 하는가 하면(사진 위), 밴드를 조직해 전국을 무대로 공연을 다니기도 하고(사진 아래 왼쪽), 연극단을 조직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사진 아래 오른쪽).

### 연극 생초보 - 부산 햇빛 연극단

어르신 연극단이 있다고 하면 으레 연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다수였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에는 연기에는 문외한인 생초보 연극단, '햇빛연극단'이 있다. 연극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10명이 모여 2006년 만들었으니 올해로 벌써 9년째다. 평소 연극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들을 위해 복지관, 학교, 병원 등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틈틈이 공연을 준비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 모여 연습을 한다. 연기지도와 작품대본은 전문 연극연출가의 손을 빌려 진행된다. 지금까지 무대에 올린 작품은 5개. 그 중 노인학대예방 내용을 담고 있는 '새는 동지에서 날개짓을 배운다'는 2008년 제1회 부산시민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또 다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극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오랜기간 활동한 회원들의 역량이 높아져 이제 연기 지도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다.

### 은퇴 후 재능 살리거나 새로 발굴

연기·밴드·기자 등 분야 다양  
사회참여 욕구 충족 큰 호응

### 전국을 무대로 - 종로 상상밴드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는 어르신 밴드가 있다. 2010년 창단된 상상밴

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음악이 있는 종로구를 만들자며 만들어진 약단. 7명의 어르신들이 각기 키보드, 드럼, 베이스, 트럼펫, 기타, 색소폰, 트럼본 주자로 나섰다. 미8군 약단에서 소속되어 있었다든지 예전에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시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밴드로 초창기에는 종로구 주회 행사에 주로 썼다. 그러나 프로밴드 못지않은 실력 덕분에 지난해에는 우주반딧불축제에 참여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다례교육 - 강남 차사랑

'친구가 모두 차 사랑해'는 대치노인복지센터(센터장 손화정)에서 전문다례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례교육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 대상 다례교육도 진행한다. 6명의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1번씩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내 유·아동 및 청소년은 어르신들에게 다례교육을 배우며 기본생활습관, 가정·사회생활습관, 언어생활습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올바른 인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또한 기를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올해부터는 강남구 주민제안사업으로 지정돼 더욱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 어르신 기자단 - 과천 시니어헤럴드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복)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는 신문이 있다. 분기별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어르신들이 기자가 되어 과천시와 복지관 주요 행사를 취재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신문 발행 전 어떤 소식을 담을 것인지 정하는 취재회의도 거친다. 기사거리가 결정되면 행사에 참여해 직접 취재에 나선다. 사진촬영은 물론 기사작성도 능숙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직 기자 출신분들이 주요 멤버이기 때문이다.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7명의 어르신들은 대개 공직이나 교직에 몸 담았던 터라 글쓰기에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들과 정보나 소식을 공유하는 데 어르신들의 필력을 적극 활용하는 시니어헤럴드는 벌써 9년이나 됐다.

## 김포 용화사, 요양병원 건립한다

3월 26일 기공식... 지상 4층 138개 병상 규모

김포 용화사가 지역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한다.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이사장 지관, 용화사 주지)은 3월 26일 용화사 경내에서 '김포 용화사(보리수)요양병원 기공식'을 봉행하고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을 비롯해 김장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명록 김포시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요양병원 건립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다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로서

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의료재단 이사장 지관 스님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 요양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아픈 육신을 치유하는 병원이 있다면 포교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사찰 경내지에 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스님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요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용화사 경내에 건립될 보리수 요양병원은 연면적 3932㎡의 지하 1층, 지상 4층, 138개 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3개월 동안 개원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1일 정식 개원한다.

## 천태중복지재단, 어린이집 개원

3월 25일 서울 구로구에

천태중복지재단(대표이사 장도장)에서는 지난 3월 2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연초롱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연초롱어린이집은 437.69㎡(약 132평)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6개 등을 갖추고 있다. 12명의 교사가 98명의 아이들을 책임진다.

천태중 사회복지장 보광스님은 개원식에서 "바르고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발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천태중복지재단에서는 지난해 '천태복지플랜 2020'을 발표하며 아동복지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 복지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연초롱어린이집은 천태중복지재단이 플랜 발표후 처음으로 수탁한 어린이집으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힘쓸 계획이다.



천태중복지재단이 아동복지에 힘쓰겠다는 복지플랜을 발표한 이후 3월 25일 개원한 연초롱어린이집

## “국제 구호, 이제는 전문성이다”

3월 25일 조계종복지재단, 국제구호 포럼 개최



3월 25일 긴급구호사업 포럼에 참여한 이들이 발표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부장이 '한국의 긴급구호사업 현황 및 향후 방향'이란 주제로 강단에 섰다. 그는 "국제 구호활동에 있어 활동주체가 증가하는 등 현지상황을 고려해 조직화,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며 "자선 시혜적 기관이 아닌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체성을 획득해나가기"를 주문했다.

이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나눔사업부 문 김동훈 부장이 복지재단 측의 실질적 경험을 예로 들어가며 구호사업에 관심 있어하는 이들과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국제구호사업만큼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곳이 없다"며 "복지재단이 국제 구호사업에 뛰어들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전문가가 없다. 피해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제기구 지역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2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구호사업의 이해 및 실천현장의 적용사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O)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양 측의 발표로 진행됐다.

첫 순서로 KCOO 대화협력팀의 이경신

## 장난감 도서관에 벽화 입혀져

신한생명 직원들 봉사활동 일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장난감 도서관 벽에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지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 부설 해피 칠드런(Happy Children) 장난감 도서관 벽에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졌다.

신한생명 직원들이 봉사활동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 도서관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벽화를 그려넣은 것이다.

신한생명측은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

다는 생각을 반영해 밝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디자인을 테마로 잡았다"며 "벽화 작업을 통해 지역내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피 칠드런(Happy Children) 장난감 도서관은 연간 5천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강서지역의 대표 어린이 도서관이다. 장난감이 구비되어 있어 아동들에게 놀이공간 제공을 하는 것 외에도 대여도 가능해 장난감 구입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서관측에 장난감 구입비 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열린다

6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문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가 오는 6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가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과 사랑의 열매 후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대회는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회 참가팀을 접수한 뒤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대회를 치르게 된다.

합창대회 참가는 50%이상 다문화자녀



가 포함된 중창단, 합창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수상팀에게는 대상(상금 300만원)을 비롯하여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지도자상 등의 상장과 상금이 부여된다.

합창대회 참가를 원하는 팀은 (사)한국다문화센터(02-737-0467~8)로 문의하면 된다.

배현진 기자

#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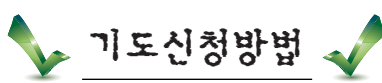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료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